“소통 · 화합으로 비구니 위상 제고 진력”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1월 8일 법룡사서 신년하례

광용 스님 “공익 실현에 최선”
묘순 스님 등 후원금 전달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법회에서 인사를 나누는 대중.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구니스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월 8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13대 집행부의 첫 신년하례로,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서원하는 법석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수현 스님과 수석부의장 일법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원로의원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부회장 혜솔 스님 등 집행부스님들을 비롯해 정운·정관·혜도·진상·혜성·법해·지인·설해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과 전국비구니회 지회장스님 등이 참석했다.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의 헌향, 종회의원 정운 스님의 헌다, 지회장 혜원스님과 혜운 스님의 헌화로 시작된 신년하례법회는 부처님전 삼배와 원로의원스님과 회장스님을 향한 하례, 대중배례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원로의장 수현 스님과 회장 광용 스님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회장 광용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봉행하는 신년하례법회로 가슴이 벅차다”면서 “공력을 바탕으로 어른스님을 공경하고 전후좌우로 소통하며 소임자들과 화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비구니스님의 위상 제고와 권익 향상에 유익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면서 “공익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원로의장 수현 스님은 “지난해 여법하게 새로운 회장스님을 모셨으니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신도들에게 포교 많이 하는 한 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구니회 교육부장 원법 스님은 대표로 낭독한 소임자 선서에서 “전국비구니회 소임자는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해 신심과 공심으로 비구니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승가공동체 정신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선후배가 되겠다”고 선서했다.

이날 신년하례에서는 후원금 전달도 이어졌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이자 전국비구니회 원로의회 부의장 묘순 스님이 운영기금 300만원을,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 200만원을 전달하며 비구니회의 발전을 염원했다. 후원금 전달식에 이어 축하떡 절단으로 신년하례법회는 마무리됐다. 광용 스님은 대중스님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화엄사 방문객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동국대WISE캠 · 불문연 등 조사
화엄사 경제 가치 ‘82억여 원’
미디어 노출 늘어 방문객 증가
덕문 스님 “지역과 상생 지속”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전국사찰 참배객의 수가 가파른 증가세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구례 화엄사는 2023년 참배객이 전년 대비 42.8% 늘어나 전국 1위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에는 화엄사만의 특별한 행사와 문화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최근 많은 미디어 노출을 통한 사찰 브랜드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 광주BBS,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년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의 미디어 노출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화엄사의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는 총 ‘82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37억 원, 2022년 46억1000만원보다 78%의 확대된 노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홍매화 사진대회 23억4500만원, 세계요가의날 기념 화엄사 요가대회 11억2300만원, 모기장영화음악회 11억9250만원, 화엄문화제 7억700만원의 미디어 노출 효과를 얻었으며, 기타 비건버거, 홍보대사 등으로 28억585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 매체 분류별로는 포털뉴스 노출 58억9200만원, TV방송 노출 22억2000만원, 기타매체 노출 1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구례군민을 떠나서는 화엄사의 존재가치가 없다. 특히 화엄사는 종교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을 하고 상생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화엄사 방문객이 증가할수록 구례에 머무는 시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의 청결함, 음식 메뉴의 개발, 친절한 서비스 등을 개선하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태종, 상월 대조사 탄신 112주년 기념법회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대통령 비롯해 각계 인사 축하
진우 스님, 대조사 인연 소개도


상월원각 대조사 영단에 헌향하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사진=천태종

단양 구인사를 창건하고 한국 천태종을 중창해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신 112주년을 기념하고, 그 가르침과 은덕을 기리는 법석이 단양 구인사에서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12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도용 대종사,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등 불교지도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김영환 충북도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김문근 단양군수 등 정·관계 인사, 김형동 천태종중앙신도회장, 서문성 금강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대조사님께서는 ‘종교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바르게 법을 지켜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자비와 지혜, 평등과 자유의 불교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신도들은 바르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진실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서 참다운 불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 밝은 인생이 성취되기를 불보살님께 축원 드린다”고 기원했다.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12주년을 봉축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는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치시며 우리 불교역사에 큰 획을 그으셨다. 대조사의 가르침은 저에게도 늘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저와 정부는 불교와 동행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하게 보듬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 향기로운 부처님의 법음과 가피가 온누리에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상월 대조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스님은 “1971년 강원도 태백산 청원사라는 절에서 당시 주지 윤무장 스님과의 교분으로 상월조사께서 친히 왕림하셨을 때 영광스럽게도 친견을 한 적이 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큰스님이 되라는 격려 말씀은 지금도 큰 울림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전 세계 청년들, 월정사서 수행정진한다

월정사 · 우든피시 재단 협약식
청년 세대 포교 프로그램 시행
7월동안 ‘HBMLP’ 수행 예정돼

올 여름, 전 세계 청년 100명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행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대만 우든피시재단(이사장 이파 스님)은 1월 8일 월정사 회의실에서 ‘출가학교(우든피시프로젝트) 공동주최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미래 불교 발전을 위해 청소년 교육·포교에 함께 협력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월정사와 우든피시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우든피시재단이 주관하는 ‘인본주의적 불교수행 체험 프로그램(Humanistic Buddhist Monastic Life Program, 이하 HBMLP)’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든피시재단의 HBMLP는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단체 숙식, 그룹 세미나, 초청 강연, 명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참가 모집 인원은 100명이다.

이와 함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우든피시 이사장 이파 스님은 기후위기, AI 윤리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정념 스님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 특히 화엄을 중심으로 하는 열림과 포용의 미래 지향적 불교사상이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600년 동안 불교가 이뤄놓은 수행과 명상 시스템이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힘이 돼 주는데 월정사와 우든피시가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4년 1월 8일 ~ 2월 28일
■ 개 강 | 2024년 3월 첫째주 3월 4일 (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향 천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